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五經義 시제 소고*

尹善英**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五經義에서 출제된 750여 개의 시제를 대상으로 하여 각 경서별 출제의 분포와 경향, 출제가 집중된 편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五經義로 출제된 시제들은 시권, 사마방목, 『임헌공령』으로 대표되는 과문집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義東』 등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선대로부터 필사되어 전래된 수험서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자료들에서 수집한 五經義 시제를 살펴본 결과, 禮義>書義>詩義>易義의 순으로 출제되었으며 『시경』은 향사에서 비교적 높은 출제비율을 보여주었다. 『예기』에서는 「樂記」, 『서경』에서는 「洪範」, 『시경』에서는 「天保」, 『주역』에서는 「繫辭上傳」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聖君과 賢臣을 존송하는 내용 및 왕업의 성대함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구절에서 높은 출제빈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예기』 가운데 喪禮와 관련한 내용, 『시경』 가운데 變大雅로 구분되는 시에서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 등, 편장의 내용에 따라 출제의 집중과 기피의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

* <http://doi.org/10.14381/NMH.2020..67.1>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R2016791)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bacaalto@korea.ac.kr

南冥學研究 제67집

주제어 : 과거(科擧), 경학(經學), 생원시(生員試), 오경의(五經義), 시제(試題)

〈차 례〉

I. 들어가며	IV. 출제가 집중된 편장 - 증복출제와 관련하여
II. 五經義 시제 수록 자료 현황	V. 나오며
III. 五經義 시제 출제 분포와 경향	

I. 들어가며

과거 시험을 통한 조선 시대 경학으로의 접근은 四書三經이 과거 시험 문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었던 여러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 당위성과 관련성이 확인된다. 이는 경학을 시험하는 生員試가 조선 쏘시기동안 설행되었다는 직접적인 요인 이외에도 조선 시대 숙종대까지 문과 초시에서 明經科를 별도 분과로 설행한 점¹⁾, 식년 문과 초시 초장에 四書疑와 五經義 시험을 제술로 시행한 점²⁾, 식년 문과 복시 초장의 七書講 등 사서삼경이 주요 구술시험의 대상이 된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明經業의 위상이 높지 않았던 점³⁾, 생원시가 小科에서 출제되었다는 점, 經文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의 여러 한계로 인해 과거 시험은 경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지금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과거 시험의 문답을 자료로 활용⁴⁾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생원시는 흔히 監試 또는 司馬試라고 불리는 소과 시험의 한 종류로, 관리들의 경학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四書疑와 五經義 두 과목을 考試하였다. 고시과목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四書疑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四書 가운데 의구심이 나는 구절을 질문한 것이며, 五經義는 『주역』, 『서경』,

1)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9년(1478) 4월 14일 기사, 성종 9년 11월 24일 기사 등
 2) 『經國大典』 「禮典」, 諸科
 3)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성종10년(1479) 윤10월 7일 기사, 『승정원일기』 정조 8년(1784) 3월 21일 기사 등
 4) 김수경(2017), 「조선 시대 五經 文獻의 眞僞性 검열에 대한 공적 담론」, 『한국한문학 연구』 68집, 한국한문학회 ; 윤선영(2019), 『조선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시경』, 『예기』, 『춘추』의 五經 가운데 한 구절의 포괄적인 經義를 질문한 것이다. 五經義의 각 과목은 易義, 書義, 詩義, 禮義, 春秋義라고 일컬었으며 춘추의는 정조대를 기점으로 폐지⁵⁾되었다. 응시자들은 이에 답하기 위해 경문의 기본적인 뜻을 숙지하고 정·주자를 비롯한 여러 巨儒들의 주석은 물론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해야 했다.

생원시의 두 과목 가운데 四書疑의 시제와 답안은 최근 들어 고찰⁶⁾되고 있어, 科試를 자료로 활용한 조선시대 경학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생원시의 또 다른 한 축인 五經義 과목에 대한 연구⁷⁾는 아직까지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시대 科試와 경학의 상호 영향 관계, 소과 생원시의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四書疑와 더불어 五經義 과목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試券, 司馬榜目 등 조선 시대 五經義 과목의 시제가 수록된 자료를 소개하고, 여기에 기록된 750여 개의 시제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개괄하고 출제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五經義 과목으로 출제된 시제들이 가지는 경학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五經義 시제 수록 자료 현황

五經義 과목의 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제를 기록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장에서는 五經義 시제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를 수록하고 있는 자료들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크게 試券, 사마방목, 시제집 및 과문집, 시험 대비용 과문초집류 서적으로 나눌 수 있다.

1. 시권 및 사마방목

- 5) 『대전통편』 「禮典」, 諸科, 式年生員初試, 製述. “四經義一篇, 四書疑一篇. 春秋義, 今廢.”
- 6) 윤선영 위 논문(2019) ; 윤선영(2020), 「조선시대 科學 四書疑 과목의 尊朱子的 양상 고찰」, 『동아한학연구』 14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등이 있다.
- 7) 經義 과목에 대한 연구는 이래중(2013), 「疑義의 形式과 그 特性」, 『大同漢文學』 39집, 대동한문화회 ; 김동석(2013), 『朝鮮時代 試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과거 시험의 시제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 과거 시험 답안지인 시권과 소과의 합격자 명단을 수록한 사마방목을 들 수 있다. 시권은 현재 한국고문서자료관 등 여러 기관에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김동석(2013)이 연구한 시권 조사 목록⁸⁾을 통해 그 대략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필자가 수집한 것을 합치면 현재까지 밝혀진 五經義 시권은 약 140편 정도로 확인된다. 지면의 한계로, 생원시 覆試 시권의 목록만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연도	응시자	과목	시제	등제	소장처
1	1543	權東輔	禮義	樂由天作, 禮以地利	2등 6위	문화재청
2	1555	金富倫	詩義	明明在下, 赫赫在上	2등 7위	한국국학진흥원
3	1561	安景老	書義	矯誣 [㉠] 天, 懷保小民	2등 12위	한국고문서자료관
4	1582	安聃壽	春秋義	宋伯姬卒, 夫人姜氏如齊	3등 14위	한국고문서자료관
5	1588	李 涵	春秋義	秋, 大水 [㉡] 水	3등 44위	한국고문서자료관
6	1609	金是柱	書義	隨山刊木, 罔水行舟	壯元	한국고문서자료관
7	1633	宋時烈	易義	一陰一陽謂之道	壯元	국립청주박물관
8	1662	張 錄	書義	江漢朝宗于海	3등 22위	한국고문서자료관
9	1666	林 泳	書義	木鐸徇于路	壯元	한국고문서자료관
10	1669	吳世周	易義	吉人之辭寡	3등 47위	전북대학교 박물관
11	1673	李後榮	易義	唯幾也, 故能成天下之務	3등 25위	한국고문서자료관
12	1675	趙維元	禮義	報者, 天下之利	2등 11위	국사편찬위원회
13	1681	金萬柱	易義	物大然後可觀	2등 18위	한국국학진흥원
14	1683	吳世瞻	詩義	倬彼雲漢, 爲章于天	3등 54위	전북대학교 박물관
15	1684	李孝根	詩義	我日斯邁, 而月斯征	3등 25위	서울대학교 규장각
16	1693	權以鎭	詩義	王釐爾成	2등 1위	한국고문서자료관
17	1699	李壽聃	禮義	用民之力, 歲不過三日	3등 40위	한국고문서자료관
18	1710	黃世燮	易義	君子以飲食宴樂	2등 13위	한국고문서자료관

8) 김동석, 위 논문(2013), 그는 논문의 부록에서 325편의 시권 조사 목록을 첨부하였으며 이 가운데 45편을 五經義 시권으로 분류하였다. p.322-368 참고.

19	1710	陳翼漢	禮義	君臣相正, 國之肥	3등 51위	국사편찬위원회
20	1721	李如沆	書義	蓄疑敗謀	2등 20위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21	1727	權瑞東	書義	在讓後人于丕時	1등 3위	국립중앙도서관
22	1738	李重穆	書義	厥包橘袖錫貢	3등 25위	서울역사박물관
23	1740	李澤	詩義	于嗟乎騶虞	2등 19위	국사편찬위원회
24	1744	朴良直	禮義	外以達秋氣	2등 19위	국립중앙도서관
25	1754	李性源	詩義	知子之來之, 雜佩以贈之	3등 15위	국립중앙도서관
26	1759	安廷玠	詩義	陟則在獻, 復降在原	2등 2위	국립고궁박물관
27	1765	李章祚	禮義	以四時爲柄	2등 13위	국립중앙도서관
28	1768	洪大協	詩義	生民	3등 24위	국립중앙도서관
29	1773	鄭東慎	易義	敦良	3등 42위	서울역사박물관
30	1792	金宗壽	易義	感而遂通天下之故	2등 9위	문화재청
31	1807	尹秉烈	禮義	仁之爲器重	3등 27위	국사편찬위원회
32	1809	李廣履	禮義	人者, 天地之心也	3등 39위	서울대학교 규장각
33	1810	朴來鼎	禮義	天降時雨, 山川出雲	2등 9위	국립중앙도서관
34	1827	金徵淳	禮義	三五而盈	2등 13위	한국고문서자료관
35	1837	李龍運	禮義	數地以對, 山澤之所出	2등 16위	국사편찬위원회
36	1840	李秀應	詩義	黍稷重穆, 禾麻菽麥	3등 54위	한국국학진흥원
37	1848	朴順陽	詩義	言提其耳	3등 24위	전북대학교 박물관
38	1858	李彥相	書義	乃審厥象	2등 2위	국립중앙도서관
39	1864	孫相駿	書義	我聞曰, 至治馨香	3등 51위	서울역사박물관
40	1865	朴齊敬	禮義	聖人曰, 禮樂云	3등 1위	한국고문서자료관
41	1867	李鍾泰	書義	初一日五行	3등 1위	한국고문서자료관
42	1867	林守柱	禮義	謂之小成	3등 115위	국사편찬위원회
43	1882	趙秉倫	禮義	清明象天, 廣大象地, 終始象四時, 周還象風雨	3등 76위	서울역사박물관
44	1894	李承禹	書義	歲二月	2등 13위	국사편찬위원회

〈표1. 五經義 시제와 답안을 기록한 생원시 복시 시권 목록〉



〈사진 1, 1882년 趙秉倫 복시 시권,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그리고 시제를 수록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는 사마방목을 들 수 있다. 五經義 시제를 수록하고 있는 방목은 총 117종으로, 이는 전부 소과의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이다. 五經義 시제가 가장 먼저 수록된 사마방목은 1648년(인조 26)에 간행된 『戊子式年司馬榜目』으로 확인된다. 이때부터 경종대까지는 복시 시제 위주로 기록되다가, 영정조대를 기점으로 초시와 복시 시제를 모두 신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순조대 이후로는 특정한 몇몇 경우⁹⁾를 제외하고는 초시와 복시 시제를 모두 빠짐없이 실었다. 그리고 같은 생원시 과목임에도 四書疑 시제는 길이가 다소 긴 원인으로 인하여 ‘問云云’으로 생략되거나 수록되지 않은 경우¹⁰⁾도 꽤 있는 반면, 五經義 과목의 경우 1648년에 복시 시제가 처음 기록된 이후 1894년 과거 시험 폐지 직전 마지막으로 간행된 『上之卽祚三十二年甲午式年司馬榜目』에 이르기까지 시제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반면, 대과에 관한 기록인 文武科 방목에서는 五經義 시제를 기록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五經義 과목이 문과 초시에서 폐지된 시점과 방목의 부록

9) 『丁卯式年司馬榜目』(1747)에서는 복시 二所 시제가, 『崇禎三辛卯式年司馬榜目』(1771)에서는 초시 一所 시제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崇禎紀元後四庚戌增廣司馬榜目』(1850), 『上之卽祚三十二年甲午式年司馬榜目』(1894)의 경우엔 초시 二所 시제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科場에서 일어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罷榜되었기 때문이다.

10) 이는 『辛卯式年司馬榜目』(1711), 『崇禎三辛卯式年司馬榜目』(1771)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에 시제를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이 맞물림으로써 빚어낸 결과라 볼 수 있다. 五經義는 1746년 문과 초시 과목에서 폐지되었음을 속대전에 명시¹¹⁾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의 문무과 방목에서만 문과 초시에서의 시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시의 시제를 기록한 몇 안 되는 문무과 방목 가운데 1714년 문무과방목에서 이미 四書疑 과목의 시제만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746년 공식적으로 五經義 과목이 문과에서 폐지되기 이전부터 초시에서 四書疑 과목만을 시험 보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전인 17세기의 방목에는 부록이 자세하지 않아 초시의 시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조선 시대 과거 시험에서 생원시에서 출제된 五經義 과목의 시제는 117종의 사마방목에서 총 380제를 수록하고 있으며, 문과 초시에서 출제된 五經義 시제는 방목을 통해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1746년 이전의 문과 초시 시권이 나, 개인 문집의 기록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2. 시제집 및 과문집

다음으로 시제집과 과문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시제집과 과문집은 정조가 중복출제를 방지하고 시제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하여 시제집의 간행을 명한 이후¹²⁾로 활발하게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시제집으로는 『京外題錄』과 『科題各體』, 시제와 답안을 함께 담은 과문집으로는 『臨軒功令』을 들 수 있다. 이는 五經義를 비롯한 여러 다른 과목의 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책의 전체적인 서지사항은 선행 연구¹³⁾에 자세하므로 여기에서는 五經義 과목과 관련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1) 문과 초시 초장의 고시과목은 五經義·四書疑·論 중 2편이었다가(『經國大典』「禮典」, 諸科), 『續大典』에서는 四書疑義 1편, 論 1편으로 변화하였으며 초장의 五經義는 폐지 [初場五經義今廢]되었다.

12) 『일성록』, 1781년 2월 12일 기사. “予曰, 凡諸科場之御題. 每有疊出之患, 故向日以前後科題, 盡爲收緝以稟之意分付矣, 其間已盡收集耶? 有防曰, 姑未收集矣. 予曰, 令成均館, 臚出於禮曹, 斯速收集事分付.”

13) 정조대~순조대에 간행된 시제집과 과문집에 대해서는 박현순(2016), 「정조의 『臨軒題議』 편찬과 御題 出題」, 『奎章閣』 4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윤선영(2017), 「순조~철종대 科擧 四書疑 시제 출제 경향 연구」, 『奎章閣』 5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 자세하다.

『경의제록』(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9943)은 1777년부터 1782년까지의 시제를 기록한 시제집으로, 대과제와 소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五經義 시제는 소과제에 수록되어 있다. 1777년(丁酉)의 增廣試와 式年試, 1780년(庚子)의 式年試의 시제가 초시-향시-복시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禮義 9제, 書義 10제, 詩義 8제, 易義 4제 등 총 31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한성시의 시제는 사마방목과 비교해봤을 때 글자 수의 가감이나 출입 없이 전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제각체』(위 기관 소장)는 순조~철종대의 시제를 기록한 시제집으로 1828-1831년의 시제를 기록한 책(奎6989)과 1835-1849년의 시제를 기록한 책(奎7299)의 2종이 전한다. 奎6989에는 1828년(戊子)과 1831년(辛卯)의 식년시 五經義 시제 총 24제가 수록되어 있다. 奎7299에는 1835년(乙未)의 增廣試, 1837년(丁酉)과 1840년(庚子), 1843년(癸卯)의 式年試, 1844년(甲辰)의 增廣試, 1846년(丙午)의 式年試, 1848년(戊申)의 增廣試, 1849년(己酉)의 式年試의 五經義 시제 총 126제가 수록되어 있다. 한성시 시제의 경우 간혹 一·二所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누락된 시제들이 있으나 대부분 방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임헌공령』은 정조~고종대의 시제와 모범 답안을 함께 엮은 과문집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11437)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있다. 규장각본은 총 77책으로, 시제만을 기록한 『임헌제총』 1-4책(3책 결본)과 시제 및 답안을 함께 기록한 『임헌공령』 1-74책의 합본이다. 이 가운데 五經義는 『임헌제총』 1책(1811)의 2제, 『임헌공령』은 17책(1798년)의 4제와 4답, 22책(1814-1822)의 46제 및 48답, 44책(1843-1846)의 37제 및 37답, 47책(1848-1850)의 47제 및 49답, 54책(1852-1855)의 4제 및 4답, 60책(1858)의 16제 및 16답, 61책(1859)의 16제 및 18답, 74책(1874)의 16제 19답, 23책(1876)의 15제 및 17답 등 총 203개의 시제와 212편의 답안을 수록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古貴3647-5)은 총 4책으로, 五經義는 2책에 기록되어 있다. 1807년(丁卯) 식년시, 1809년(己巳) 증광시, 1810년(庚午) 식년시, 1811년(辛未)의 應製에서 출제된 시제 51개와 60편의 답안을 수록하고 있다. 규장각본과 중도본은 1811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중복되고 있으며 『임헌제총』 1책에는 시제만 나와 있는 반면, 중도본 『임헌공령』 2책에는 이에 대한 답변까지 수록하고 있어

서로 간에 좋은 보충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시제집과 과문집은 정조~고종대까지 五經義 과목으로 출제된 시제와 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수록하고 있어 조선 후기 과거사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방목에서 기록되지 않은 향시 시제를 알 수 있다는 점, 시권만으로는 파악하기 부족한 상위권의 여러 답변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3. 시험 대비용 科文抄集類 서적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 준비생들은 실제 기출된 문제 또는 출제가 유력한 유명 구절을 모으고 이에 관한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시험에 대비하였다. 시험 대비용 참고서의 경우에도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五經義와 관련한 참고서의 경우는 대부분 과문초집류¹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五經義 과목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수험서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義東』



14) 박현순은 과거 시험 대비 참고서에 대해 중국과 조선의 과문을 모은 간행본 科文選集과 우수 답안이나 습자를 모은 필사본 科文抄集, 개인의 과작과 습자를 모은 필사본 科文私集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현순(2015), 「조선 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6-207면 참조, 윤선영 위 논문(2019) 71면에서 재인용.)

〈사진2. 『義東』, 25.0x16.0cm.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고)811.0829〉

이 책은 필사본 1책으로, 五經義 과목의 시제를 각 책으로 분류하고 편장을 나누어 시제와 답안을 기록하였다.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고려대 등에 소장된 四書疑 시험 대비 수험서인 『疑東』¹⁵⁾과 그 체계를 같이 한다. 두 책의 서명에 붙여진 ‘東’이라는 글자를 통해 조선의 과문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시제와 南龍翼(1628:1692), 柳章玉(1653?) 등 응시자의 생몰년 등을 통해 이 책이 17세기 五經義 시험의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17세기 후반에 五經義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1편이긴 하지만 춘추의 시제가 기록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책의 필사 연대는 1700년대 초반~춘추의가 폐지된 1746년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 책은 詩義 26편, 書義 23편, 禮義 10편, 易義 3편, 春秋義 1편의 순서대로 시제와 응시자, (성적), 답안을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총 63편의 시제와 응시자 이름을 실제 과거 시제 및 응시자의 과거 합격 정보와 비교해본 결과, 별다른 기록 없이 응시자와 답안만이 나와 있는 경우는 실제 과거 시험에서의 기록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 다만, 응시자의 이름 밑에 생원시 최종 시험인 會試[覆試]를 의미하는 ‘會’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시제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 편마다 응시자의 이름과 성적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책이 출제 예상문제에 연습 삼아 습작해 놓은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실제 초시 및 향시에서의 답안 가운데 모범으로 삼을만한 것을 모아 수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다만 현전하는 시제집이나 방목에 이 시기의 초시 시제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다른 자료군에서 찾아보기 힘든 18세기 이전 五經義 시험의 초시 및 향시 시제와 답안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 『義題錄』

15) 疑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윤선영 위 논문(2019), 71-73면 참조.



〈사진3. 『義題錄』, 18.7 × 12.6cm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MF35-8946)〉

이 책은 필사본 1책으로, 五經義 가운데 『예기』·『서경』·『시경』·『주역』 네 책에서 출제된 시제를 편장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시제를 적어놓은 것 외에 아무런 다른 기록이 없어 이 책의 간행목적이나 필사 연대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춘추를 제외한 四經義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우선 정조대 이후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우측 상단에 편명을 적고, 그 아래에 각각의 장절을 적었다. 편명은 필요에 따라 축약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서경』의 文王世子를 文世로, 『시경』의 文王有聲을 文聲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는 기록의 편의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주역』을 제외한 세 책의 경우는 경문의 편제를 따르고 있으나, 한 편 안에서의 각 장의 순서는 경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책에는 예기 355제, 서경 340제, 시경 208제, 주역 81제의 시제 총 984제를 수록하고 있는데 필자가 수집한 실제 출제 시제와 비교해 본 결과 약 283개의 시제가 일치하였고 나머지는 실제 출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제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전 과거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문제와 출제 가능성이 큰 예상 문제를 합하여 기록한 抄集類 과문집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283개 기출 문제의 경우 1882년까지의 시제가 일치함이 발견되는 바, 이 책은 곧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義題를 모아 1882년 이후 필사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과거사와 경학사 연구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3) 『五經義』



<사진4. 『五經義』, 29.7 × 18.0cm,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고180)>

이 책은 필사본 3책으로 1책에는 書義, 2책이 禮義, 3책은 詩義의 시제와 간략한 답안이 기록되어 있다. 書義와 詩義는 몇 편을 제외한 전편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禮義는 17편인 「少儀」부터 기록되어 있다. 또한 易義가 빠져 있는 점으로 보아 최소 2책 이상의 零本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책 또한 권수 및 권말에 서발문이 없으며 책의 제목과 각 편의 편명, 중요 구절, 답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필사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책에 적혀 있는 시제들 가운데 실제 기출된 시제와 일치하는 것은 몇 문제뿐이며, 답안 또한 완성형의 모범 답안이라기보다는 각 구절의 經義를 간략히 적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거자 및 시종에 관한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책은 각 편의 주요 구절을 예상 시제로 기록하고 경의를 간략하게 적어 경문의 내용을 빠르게 암기하고자 한 필기 노트 성격의 수험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총 3종의 시험대비용 수험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의동』은 17세기 실제 과장에서 시제와 답안을 기록한 과문집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의제록』은 정조~고종대까지의 기출 시제 및 예상 문제를 함께 기록하여 1882년 이후에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五經義』는 예상 문제와 그 구절에 대한 간략한 경의를 정리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든 시험 대

비용 수험서이다.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인 殿試를 대비하는 여러 참고서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소과의 과목인 五經義를 대비하기 위한 참고서가 만들어지고 필사된 사실은 과거 시험 합격에 대한 당대 응시생들의 열망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책들은 당시 문화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등, 국가의 명으로 편찬된 시제집이나 과문집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보여준다.

Ⅲ. 五經義 시제 출제 분포와 경향

1. 전체 시제 개괄

전술하였듯이, 필자는 시권과 사마방목, 시제집과 과문집, 시험 대비용 수험서 및 기타 사료 등을 통해 실제 과거 시험에서 출제된 750여개의 五經義 시제를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예기』에서 총 260제(35%), 『서경』에서 190제(25%), 『시경』에서 188제(25%), 『주역』에서 103제(13%), 『춘추』에서 9제(1%)가 출제되었다. 『춘추』를 제외한 4경 가운데, 『예기』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주역』의 출제 비중이 가장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서 大文의 분량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이나, 그보다는 당대 조선 사회가 중요시했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떠한 텍스트가 가장 적절했는지가 더욱 중요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기』의 높은 출제 비중은 조선이 유학을 중심으로 한 예치국가로서, 예를 가장 중시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이는 『서경』의 출제 빈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경』은 대문의 양이 『주역』과 비슷한 데 비해 『주역』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경』에 국가 통치에 모범이 될 만한 구절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전제군주제 국가였던 조선에서 왕도정치를 향한 관심이 국가 차원의 시험 문제 출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다섯 책의 출제 비중을 초시와 복시, 한성시와 향시 등 試種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초시와 한성시에서는 五經의 전체적인 출제 비율인 예>서≥시>역>춘추

와 다르지 않았다. 다섯 책 가운데 향시와 복시에서 출제 비율의 차이가 가장 컸던 책은 바로 『시경』이었다. 『시경』은 향시에서 『예기』(28%)와 『서경』(26%)보다 많은 출제 비율(32%)을 보여 준 반면, 복시에서는 19%로 비교적 낮은 출제 비율을 보였다. 문학적인 『시경』에서의 출제를 향시에서는 선호하였으나 최종시인 복시에서는 크게 선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시기에 따른 구분 또한 전체 출제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주역』의 경우 정조대 이전 19%의 출제 비율에서 정조순조대 13%, 현종대 이후 10% 등 점차적으로 출제 비중이 줄어들었다. 형이상학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주역』은 오경 가운데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어 응시자들의 준비가 힘들었던 과목인 만큼¹⁶⁾ 후대로 갈수록 시관들도 채점하기 용이하고 응시자들의 부담도 낮추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간 듯하다.

2. 각 책 경문 편장의 분포¹⁷⁾

다음으로 각 책 경문의 개별 편장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기』는 「曲禮(上)」부터 「喪服四制」까지 총 49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과 『중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7편에서 시제가 출제되었다. 『예기』에서 출제된 260제는 과연 어떠한 편장에서 얼마나 출제되었는지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편장에 중복으로 나오는 구절이나, 여러 편장을 포함하는 구절은 제외하였다.

편명	횟수	편명	횟수	편명	횟수	편명	횟수
01. 曲禮(上)	13	11. 郊特生	5	25. 祭統	3	40. 投壺	3
02. 曲禮(下)	7	12. 內則	5	26. 經解	2	41. 儒行	7
03. 檀弓(上)	1	13. 玉藻	15	27. 哀公問	1	43. 冠義	1

16) 이는 문과 초시 講書 시험에서 『주역』과 『춘추』를 고강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과목에 비해 分數를 2배로 계산해준 사실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續大典』권3, 「禮典」, 諸科, “周易·春秋, 倍畫”)

17) 五經義 시험은 본래 禮義書義詩義易義春秋義 가운데 1편을 출제하였으나, 정조 때부터 오경 가운데 春秋義를 제외한 四經 중에서 1편을 출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정조대 이전 자료에서만 춘추의를 볼 수 있으며, 출제 비율 또한 낮아 춘추의에서 출제된 시제는 아주 적은 수만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각 경의 분포, 출제 경향 등과 관련하여서는 4경의 시제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04. 檀弓(下)	7	14. 明堂	3	28. 仲尼燕居	2	45. 鄉飲酒義	4
05. 王制	15	15. 喪服	1	29. 孔子閒居	3	46. 射義	2
06. 月令	23	17. 少儀	1	30. 坊記	7	47. 燕義	2
08. 文王世子	16	18. 學記	17	32. 表記	10	48. 聘義	2
09. 禮運	23	19. 樂記	36	33. 緇衣	4	총 34편에서 출제	
10. 禮器	7	24. 祭義	9	39. 深衣	1		

〈표2. 禮義에서 출제된 시제의 각 편장 분포(음영표시:출제 빈도가 높은 편장)〉

표를 통해, 『예기』 47편 가운데 총 34편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여러 편장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곡례(상)」, 「왕제」, 「월령」, 「문왕세자」, 「예운」, 「옥조」, 「학기」, 「악기」 등의 편에서 높은 출제 빈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曾子問」, 「大傳」, 「雜記(上)(下)」, 「喪大記」, 「祭法」, 「奔喪」, 「問喪」, 「服問」, 「問傳」, 「三年」, 「昏義」, 「喪服四制」의 13편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喪禮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편은 출제를 기피했음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비교적 앞부분에 포진되어 있는 편장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뒤편으로 갈수록 출제 빈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서경』과 『시경』, 『주역』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편명	횟수	편명	횟수	편명	횟수	편명	횟수
虞書堯典	6	商書太甲(下)	2	周書牧誓	1	周書君奭	5
虞書舜典	11	商書咸有一德	5	周書洪範	24	周書立政	4
虞書大禹謨	10	商書盤庚(中)	1	周書金縢	2	周書周官	10
虞書皋陶謨	5	商書盤庚(下)	1	周書大誥	1	周書君陳	5
虞書益稷	14	商書說命(上)	3	周書康誥	6	周書君牙	1
夏書禹貢	23	商書說命(中)	3	周書酒誥	4	周書冏命	2
夏書胤征	2	商書說命(下)	4	周書召誥	7	周書呂刑	2
商書仲虺之誥	2	周書泰誓	1	周書洛誥	2	周書秦誓	7
商書太甲(上)	1	周書泰誓(下)	2	周書無逸	5	총 35편에서 출제	

〈표3. 書義에서 출제된 시제의 각 편장 분포〉

『서경』은 禹書 5편, 夏書 4편, 商書 17편, 周書 32편의 총 5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경』에서 출제된 문제는 총 190제로, 가장 첫 번째 책인 禹書에서는 5

편이 모두 출제된 반면 뒤편으로 갈수록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편장의 수가 많아졌다.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편은 夏書의 「甘誓」, 「五子之歌」, 商書의 「湯誓」, 「湯誥」, 「伊訓」 등 8편, 周書의 「泰誓中」, 「武成」, 「旅獒」 등 13편으로 총 23편이었다. 편장의 수가 많고, 각 편의 길이가 짧은 까닭에 다른 책에 비해 압도적인 출제 횟수를 보이는 편장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공」, 「홍범」 편에서 20문제가 넘게 출제되어 그 중요도를 보여주었다.

편명	횟수	편명	횟수	편명	횟수	편명	횟수
周南·卷耳	3	小雅·隰桑	3	大雅·生民	4	周頌·豐年	2
鄭風·女曰雞鳴	2	大雅·文王	10	大雅·假樂	2	周頌·訪落	2
齊風·雞鳴	2	大雅·大明	4	大雅·公劉	2	周頌·載芟	2
秦風·蒹葭	2	大雅·緜	6	大雅·洞酌	2	魯頌·閟宮	2
豳風·七月	12	大雅·棫樸	3	大雅·卷阿	4	商頌·那	2
小雅·鹿鳴	2	大雅·旱麓	2	大雅·烝民	3	商頌·烈祖	2
小雅·天保	18	大雅·思齊	8	大雅·韓奕	2	商頌·長發	2
小雅·鶴鳴	2	大雅·皇矣	4	大雅·江漢	2	商頌·殷武	2
小雅·巷伯	2	大雅·靈臺	2	周頌·天作	3	총 74편에서 출제(1 문제만 출제된 44편 포함)	
小雅·裳裳者華	3	大雅·下武	2	周頌·時邁	2		
小雅·賓之初筵	2	大雅·文王有聲	3	周頌·臣工	2		

〈표4. 詩義에서 2문제 이상 출제된 시제의 각 편장 분포〉

『시경』은 총 305편으로 한 편에서 한 문제만이 출제된 편장이 워낙 많아 2문제 이상 출제된 편장만을 나열하였다. 「豳風·七月」, 「小雅·天保」, 「大雅·文王」 등에서 10회 이상의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王風, 邶風 전체 등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시경』에서 출제된 188제를 六義와 연결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風·雅·頌의 비율로 나누어 보면, 風에서는 총 40제(21%), 小雅에서는 45제(24%), 大雅에서는 71제(38%), 頌에서는 32제(17%)가 출제되었다. 雅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雅 가운데서도 王政의 연향 악가인 大雅에서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이는 『시경』 305편이 풍(160편, 52%)>소아(74편, 24%)>송(40편, 13%)>대아(31편, 10%)의 순으로 구성된 것과는 다른 비율을 보

여주는 것이다. 경문의 양이 출제 비중에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치겠지만, 내용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賦·比·興으로 살펴보면, 賦에서는 158제(84%), 比에서는 10제(6%), 興에서는 2문제(1%)가 출제되어 賦에서 압도적인 출제 비율을 보였다.

『시경』에서 출제된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나머지 3책들의 보편적인 출제 경향과는 다른 점을 보여준다. 『시경』은 책의 후반부의 편장에서 높은 출제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3책이 주로 앞부분의 편장에서 높은 비율의 출제 빈도를 보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첫 편에서 많은 문제를 출제한 점과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경』의 가장 첫 편인 「關雎」에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의아하다. 이는 「관저」가 주 문왕의 후비인 太姒의 덕을 찬미한 내용을 주제로 한 것과 관련하여 여성이 주인공인 편장보다는 주문왕의 덕을 전면에 내세운 시들에서의 출제를 선호한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두 개의 편명에서 각기 하나의 구절을 가져와 합쳐서 문제로 출제한 시제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桃夭」와 「鶉之疆疆」의 경우 「桃夭」와 「鶉之奔奔」에서, 「鶉鶉青蠅, 皎皎白駒」는 「青蠅」과 「白駒」에서 한 구절씩을 따서 하나의 문제에서 출제한 것이다. 이는 운문으로 구성된 경문이 가지는 특성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시경』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편명	횟수	편명	횟수	편명	횟수	편명	횟수
乾卦	19	謙卦	2	升卦	1	兌卦	2
坤卦	2	觀卦	2	困卦	1	既濟卦	1
蒙卦	1	復卦	1	井卦	1	繫辭上傳	32
需卦	1	頤卦	1	鼎卦	2	繫辭下傳	10
訟卦	1	大過卦	1	震卦	1	序卦傳	1
泰卦	2	離卦	3	艮卦	1	雜卦傳	1
同人卦	2	恒卦	2	漸卦	1	총 30편에서 출제	
大有卦	3	睽卦	2	豐卦	1		

〈표5. 易義에서 출제된 시제의 각 편장 분포〉

마지막으로 『주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역』에서는 총 103제가 출제되었는데, 위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특정 몇몇 과에 문제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괘」와 「계사전」에서만 59% 이상의 문제가 출제된 점은 과거 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특정 편장을 위주로 학습했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반면, 屯卦 등의 38괘와 설괘전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주역』도 나머지 책들과 마찬가지로 앞부분 괘의 출제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주역』의 첫 번째 과와 두 번째 과인 「건괘」와 「곤괘」의 출제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주역』에서 乾은 天, 陽, 아버지 등을 의미하며 坤은 地, 陰, 어머니 등을 의미하여 서로 대비되어 함께 칭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文言傳」에도 「건괘」와 「곤괘」가 함께 해설되어 있다. 그렇기에 「곤괘」 또한 「건괘」에 버금가는 출제 빈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건괘」의 압도적인 출제 비중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시경』 「관저」가 가장 첫 번째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3. 조선 후기 출제 시제의 특징

五經義 과목으로 출제된 시제들을 살펴본 결과, 시기에 따른 출제 경향의 변화 양상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이는 조선 전기(16세기 이전)의 자료가 후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군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전·후기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한 상황에서, 조선 후기에서의 시제 기록과 출제 경향에서 보이는 특징이 있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시제의 기록은 16세기까지는 경문의 두 구절을 그대로 실어주다가, 후대로 갈수록 단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문의 앞 뒤 몇 글자를 생략하는 경우, 두 구절 이상에서 몇몇 글자를 뽑아 추리는 경우, 한 구절에서 몇 글자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각각의 예를 들어보면, ‘自古在昔, 先民(1774)’(경문 自古在昔, 先民有作), ‘白牡, 騂剛(1843)’(경문 殷白牡, 周騂剛), ‘日觀(1809)’(경문 乃日觀四岳羣牧) 등이다. 그러나 이는 오경을 공부한 선비라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로써

문제의 난이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외에도 ‘遐不謂矣, 中心藏之’(1858) (경문心乎愛矣, 遐不謂矣. 中心藏之, 何日忘之.) 등 경문의 격식을 거의 무시한 듯한 시제들도 가끔 보이나, 이는 중국 과거 시험의 八股文에서 구절을 괴상하게 자르는 등¹⁸⁾ 응시자에게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려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시제 출제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易義에서 ‘文言(1835)’, ‘大有(1888)’를 출제하거나, 詩義에서 ‘生民(1774)’을 출제하는 등 구절이 아닌 편명 자체를 출제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다만 五經義 과목의 특성상 시제로 특정 구절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구절의 해석 위주 서술보다는 한 편 전체의 大旨를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그 답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시험 과목의 문답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詩義의 ‘豈弟君子’, ‘夙興夜寐’, 書義의 ‘乃逸’, ‘司馬’와 같이 어떠한 편장을 특정할 수 없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는 점 또한 17세기 이후 출제된 시제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이 경우 시제가 속해 있는 각 편장의 大旨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서술했는지, 혹은 여러 편장 가운데 시관과 거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특정 편장이 있어 그 편장만을 서술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안을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제들 가운데 동일 시제에 대한 여러 답안이 존재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같은 구절이 들어가는 두 편간의 비교 서술이 아닌, 모두 한 편장으로 통일하여 답안을 작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서경의 ‘惟木’의 경우 「禹貢」과 「說命(上)」에 나오지만, 『임헌공령』에 실린 3편의 답안¹⁹⁾에는 모

18) 중국의 시관들은 응시생들이 표절하고 모방하는 일을 막고자 온갖 방법을 다해 팔고문 제목 유형을 일신하는데 관심을 쏟았다. 팔고문의 제목은 갈수록 편벽하고 기이해졌으며 나중에는 무슨 뜻인지조차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중용』의 “及其廣大, 草木生之”를 줄여 “大草”라는 시제를 낸 것 등으로, 이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저 응시생들을 곤란하게 만들 따름이었다. 왕카이푸 지음, 김효민 옮김(2015), 『팔고문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86-96면 참고.

19) 『임헌공령』(47책)의 1850년 增廣監試初試(慶尙道) 金周澤의 답안; 『임헌공령』(60책)의 1858년 式年監試初試(忠淸右道) 李喜春의 답안; 1878년 『임헌공령』(23책)의 式年監試初

두 「우공」에서의 구절로 설명하였다. 또한 『시경』의 ‘朱芾斯皇’ 또한 「采芣」와 「斯干」에 모두 나오지만, 답안은 「사간」의 구절로 통일하여 작성²⁰⁾되었다.

이외에도 禮義의 ‘予一人’은 「曲禮下」와 「玉藻」에, ‘樂盈而反, 以反爲文’은 「樂記」와 「祭義」에, 書義의 ‘宗彝’는 「홍범」과 「익직」에 함께 나오는 구절이다. 다만 해당 시제의 답안 자료가 부족하여 비교 대상이 없어 더 이상의 분석은 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구절이 여러 다른 편에서 사용되더라도 구절 자체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답안 속에서 특정 편장의 이름을 기록하는 등 응시생들 사이에서 한 편의 내용으로 답안이 통일된 점에 대해 어떠한 기준이 작용한 것인지는 추후 자료 보충과 더불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IV. 출제가 집중된 편장 - 중복출제와 관련하여

앞에서 五經義 과목으로 출제된 시제에 대해 각 책과 편장의 출제 횟수를 개괄적으로 정리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III-2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출제가 집중된 시제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 책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 3편과 그 외 단일 문제로 3회 이상 출제된 시제들의 중복출제 경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제들이 담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전술하였듯이, 『예기』에서는 「樂記」(36), 「禮運」(23), 「月令」(23)의 순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단일 문제로는, 「文王世子」의 ‘君子曰德’(4), ‘文王之爲世子’(3), 「禮運」의 ‘天不愛其道, 地不愛其寶, 人不愛其情’(3) 등이 3회 이상 출제되었다. 텍스트의 양이 많고, 비교적 다양한 편장에서 골고루 출제되어 260문제 가운데 2회 이상의 중복출제 문제는 총 23제로, 그리 많지 않았다.

『서경』에서는 「洪範」(24), 「禹貢」(23), 「益稷」(14)의 순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단일 문제로는, 「秦誓」의 ‘其心好之, 不啻如自其口出’(5)가 가장 많이 중복되어 나왔다. 그 외에 3회 이상 나온 구절은 「홍범」의 ‘惟十有三祀, 王訪于箕子’(3), ‘初一曰五行’(3), ‘土爰稼穡’(3), 「익직」의 ‘予欲觀古人之象’(3), 「君奭」의 ‘則商實’(3), 「康誥」의 ‘庸庸祗祗威威’(3), 「우공」의 ‘惟木’(3)이었다. 書義로 출제

試(평안도) 宋臣穆의 답안.

20) 『임헌공령』(중도본)의 1810년 式年監試初試(江原道) 李雲英의 답안; 權英佐의 답안.

된 190제 가운데 2회 이상의 중복출제 문제는 총 44제였다. 비교적 높은 비율로 선대의 문제가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경』에서는 「天保」(18), 「七月」(12), 「文王」(10)의 순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단일 문제로는, 「천보」의 ‘如月之恒, 如日之升’ (8), 「문왕」의 ‘凡周之士, 不顯亦世’ (6)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이 외에 3회 이상 나온 구절로는 「思齊」의 ‘古之人無斃, 譽髦斯士’ (3), ‘肆成人有德, 小子有造’ (3), 「천보」의 ‘羣黎百姓, 徧爲爾德’ (3), 「裳裳者華」의 ‘維其有之, 是以似之’가 있었다. 詩義로 출제된 188제 가운데 2회 이상의 중복출제 문제는 총 45제였다. 詩義 또한 書義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동일한 시제들이 중복출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역』에서는 「계사상전」(32), 「건괘」(19), 「계사하전」(10)의 순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단일 문제로는, 「離卦」의 ‘明兩作, 離, 大人以繼明照于四方’ (3)이 3회 이상 출제된 유일한 문제였으며, 총 103제 가운데 13제만이 2회 이상 출제된 문제였다. 「계사전」과 「건괘」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었기에, 이편에 속한 특정 구절이 반복되어 출제되었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나름 여러 구절에서 골고루 출제되어 중복으로 출제된 시제는 많지 않았다.

네 책의 중복출제 문제들을 살펴본 결과, 약 750여제 가운데 125제(16%)가 중복으로 출제되었으며 이는 書義·詩義·易義·禮義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생원시의 또 다른 과목인 四書疑에서 출제된 약 830여제 가운데 126제(15%)가 유사 및 동일 문제였다는 점을 볼 때 비율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점을 보인다. 다만 四書의 전체 텍스트양이 오경의 1/3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五經義 과목의 중복출제 비율은 四書疑보다 오히려 높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五經義에서 중복으로 출제된 시제들은 주로 정조대와 순조대의 향시 시제가 현종대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후대로 갈수록 중복출제의 주기가 짧아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780년 式年監試初試(平安淸北)에서 출제된 書義 ‘嶧陽孤柯’이 바로 3년 뒤인 1783년 增廣監試의 복시 시제로 나온 점, 1807년 式年監試初試(公忠右道)에서 출제된 詩義 ‘白牡騂剛’이 3년 뒤인 1810년 式年監試初試(全羅左道) 시제로 나온 점 등이다. 심지어, 1843년에 치러진 式年監試初試에서는 詩義 ‘肆成人有德, 小子有造, 古之人無斃, 譽髦斯士’가 쏠

羅右道와 咸鏡北道에서 동시에 출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四書疑 과목의 중복출제 경향과 유사함을 보여준다.²¹⁾ 또한 정조대와 순조대의 향시 시제가 추후 중복출제의 타겟이 된 것은 당대 시제집과 과문집의 간행과 분명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²²⁾ 방목에서 기록해오던 漢城試 시제 외에 과문집에 실린 향시의 시제는 문제 출제로 고심하던 試官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복출제의 전체적인 비율, 현종대 이후로 정조·순조대의 향시 시제가 자주 출제된 점, 후대로 갈수록 중복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그 주기가 짧아지는 점 등은 생원시의 두 과목인 四書疑와 五經義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다음으로 자주 출제된 편장들과 시제의 내용에 대해 각 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편은 「악기」로, 예악을 중요시한 공자의 사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 공자는 『논어』「泰伯」에서 “시에서 흥기하고, 예에 서며 음악에서 완성한다[興於詩, 立於禮, 成於樂.]”고 하였듯이 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리로, 악은 이를 통해 인격을 완성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예운」은 중국 고대의 五帝三皇 등으로부터 전해지는 여러 제도와 규정 등에 대해 기술한 편이다. 이편은 공자가 제자 子游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세태를 한탄하며 大道가 행해지던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워하는 내용인 大同說로 처음 시작하고 있으며 『孔子家語』에도 실려 있어, 이미 높은 출제 비율을 예고하였다.

「월령」은 1년의 12개월에 해당하는 자연의 법칙과 농업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규칙들, 그에 맞는 국왕의 국정에 관해 기술하였으며, 「문왕세자」는 문왕이 세자였을 때의 일상을 기술한 편장이다. 그러므로 「월령」과 「문왕세자」는 조선의 왕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편장이었다. 조선의 3대 군주인 태종은 「월령」을 읽고는 말하기를, “이편은 人君만이 알아야 할 바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두루 깨우쳐 일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는 당시 領議政府事였던 河崙에게 명하여 「월령」을 修撰하게 하였다.²³⁾ 또한 숙종대의 領議政 金昌集은 왕세자에

21) 四書疑 과목의 중복출제 양상은 윤선영(2019), 「조선 후기 과거 생원시 문답의 한계점 고찰 -四書疑 과목을 중심으로-」, 『JKC』 45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에 자세하다.

22) 윤선영, 위 논문(2019), 417-421면 참고.

계 올린 글에서

삼가 생각건대, 저하께서는 인자하고 효성스러움이 일찍이 드러나셨으니 어찌 신의 구구한 말을 들으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더욱 스스로 면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로써 움직이시고, 문왕세자(文王世子)를 모범으로 삼아 밖에 나가서는 일을 잘 해결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부모님을 잘 모시며, 조석으로 낮빛을 부드럽게 하여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잘 받들기를 우리 문종께서 세종대왕을 모신 것처럼 하소서.²⁴⁾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자와 관련한 기사들에 「문왕세자」의 내용을 인용한 것²⁵⁾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예기』에서 단일 문제로 많이 출제된 ‘文王之爲世子’는 「문왕세자」의 첫 구절로써, 이편의 총론을 기술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君子曰德’은 이편의 중간부인 “군자는 덕이 이루어진 것이니, 덕이 완성되면 가르침이 높아지고, 가르침이 높아지면 관직이 바르게 되며, 관직이 바르게 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니, 곧 세자가 군주가 됨을 이르는 것이다[君子曰德, 德成而教尊, 教尊而官正, 官正而國治. 君之謂也.]”의 첫 구이다. 이 구절은 세자의 덕이 이루어진 상태를 군자로 일컫고 그 덕이 이루어져 세자가 군주가 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써, 이편의 핵심을 담은 주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서경』에서는 「홍범」과 「우공」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홍범」은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大道인 洪範九疇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편이다. 이는 우왕이 하늘의 계시로 얻었다고 대대로 전해졌는데, 이를 箕子가 武王의 물

23)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1410) 2월 29일 기사, <丙寅命領議政府事河崙, 修撰「月令」. 上觀「禮記」·「月令」曰, “此非獨人君所當知, 要令民庶通曉而趨事也.” 遂命崙擇寫可行事目以進>

24)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60권, 숙종 43년(1717) 8월 1일 기사, <洪惟邸下, 仁孝夙彰, 豈待臣區區之言, 而亦願益加自勉. 動以禮之, 文王世子爲法, 出而決事, 入而侍湯, 晨夕愧愉, 養志無違, 如我文宗之於世宗大王也.>

25)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200권, 성종18년(1487) 2월 29일 기사;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1727년) 9월 10일 기사; 「정조실록」 53권, 정조24년(1800) 2월 2일 기사 등이 있다.

에 대답하며 전해준 것이다. 存齋 李徽逸과 葛庵 李玄逸 형제의 『洪範衍義』, 涑川 禹汝楸(1591-1657)가 지은 『洪範羽翼』 등은 흥범구주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고증하여 해설을 붙인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조선 시대 흥범학을 대표하는 저술들이다. 이처럼 「흥범」은 상서학 가운데 조선시대 경학자들에게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던 편임에 분명하다.²⁶⁾

「우공」은 夏나라 禹王의 여러 행적 가운데 토지를 9개 주로 구획하고 정비한 것과 관련하여 구주(九州)의 지리와 산물을 자세히 기록한 편이다. 우임금은 治水 사업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조세 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공적으로도 유명하며 고대 중국의 聖君으로 추앙받고 있다. 위 두 편은 모두 우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익직」은 순임금의 밑에서 벼슬한 어진 대신인 익과 직의 행적을 기술한 편으로, 우왕이 그들의 덕을 높이 칭찬하였으므로 사관이 기록하였다. 그리고 순임금과 우임금의 정치설을 기술한 「大禹謨」에서도 또한 적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결론적으로 서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된 편장은 모두 순임금 및 우임금과 관련이 있어, 조선 왕실에서 중국 고대의 여러 임금 가운데 어떠한 군주를 롤모델로 삼으려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단일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이 출제된 ‘其心好之, 不啻如自其口出’은 「秦誓」의 구절로, 「진서」는 秦穆공이 賢臣인 百里奚의 간언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출정하다 정나라에 패한 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을 선서한 내용이다. 해당 구절은 한 명의 훌륭한 신하를 예로 들어, 그가 다른 사람이 낸 훌륭한 제책을 마음속으로 좋아하며 자기 입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좋아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로운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²⁷⁾이다. 「진서」는 『서경』의 마지막 편이며 텍스트의 분량도 적어 시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았으나, 이 구절만큼은 『중용』에서도 나오는 등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가장 많은 기출 문제로 자리매

26) 위 두 책을 포함하여 「흥범」을 별도의 책이나 장으로 구분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한 조선 선유들의 주석서는 총 15종에 이른다. <한국경학자료시스템(<http://koco.skku.edu>)> 참고

27) 『書經』·「秦誓」, “味味我思之, 如有一介臣, 斷斷猗無他技, 其心休休焉, 其如有容, 人之有技, 若己有之, 人之彥聖, 其心好之, 不啻如自其口出, 是能容之, 以保我子孫黎民, 亦職有利哉!”

김하였다.

『시경』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세 편은 「소아·천보」, 「빈풍·칠월」, 「대아·문왕」으로 이편의 대함에 대해 『毛詩』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천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은혜에 보답한 내용을 읊은 시이다. 임금의 아랫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추어 그 정사를 이루었고 신하는 아름다움을 임금에게 돌려 그 윗사람에게 보답한 것이다. 「칠월」은 왕의 업적을 읊은 시이다. 주공이 변고를 만났으므로, 후직과 선대의 교화가 있게 된 연유와 왕업을 이루기 어려웠음을 진술한 것이다. 「문왕」은 문왕이 명을 받아 주나라를 일으킴을 읊은 시이다.²⁸⁾

위 세 편은 모두 선왕의 훌륭한 업적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읊은 시이다. 왕의 善政에 관한 찬양은 『시경』의 다른 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이편들의 출제 빈도가 높은 이유가 특별한 내용을 기술해서라기보다는 이편의 특정 구절, 예컨대 「천보」의 ‘如月之恒, 如日之升~’, 「문왕」의 ‘凡周之土, 不顯亦世’ 등이 자주 출제됨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편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를 六義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것이 조금 더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하였듯이, 六義 가운데 詩體에서는 雅(62%), 수사법에서는 賦(84%)의 출제비율이 압도적이었다. 雅는 주나라 조정의 宴樂으로, 주나라 지방의 민요인 風이나 선조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인 頌에 비해 왕조의 흥망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다른 시체에 비해 출제가 선호되었던 듯하다. 雅는 주나라의 王道가 베풀어지고 政教가 바르게 시행되었을 때의 음악인 正雅와 왕도가 쇠퇴하고 예의가 폐해졌을 때의 음악인 變雅²⁹⁾로, 그 正變의 구분이 있다. 소아 「六月」부터 「何草不黃」까지를 變小雅라 하고, 대아 「民勞」부터 「召旻」까지를 變大雅라 한다.

雅에서 출제된 시제 가운데 正雅에서는 약 81%가 출제되었으며, 變雅에서는 약 19%가 출제되었다. 그런데 이 정변의 비율은 小雅에서는 약 63%/37% 정도

28) 『毛詩註疏』 권16, “天保, 下報上也。君能下下, 以成其政, 臣能歸美, 以報其上焉。” ; 권15, “七月, 陳王業也。周公遭變, 故陳后稷先公風化之所由, 致王業之艱難也。” ; 권23, “文王, 文王受命作周也。”

29) 『毛詩註疏』 권1, “至于王道衰, 禮儀廢, 政教失, 國異政, 家殊俗, 而變風變雅作矣。”

였으며, 大雅에서는 약 90%/10% 정도로, 소아보다 대아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國風 가운데 正風으로 알려진 周南과 召南에서 단 3문제만이 출제된 것과는 사뭇 다른 면모³⁰⁾이다. 결론적으로 詩義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正變의 분류는 大雅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는 곧 正大雅에서의 집중적인 출제로 이어졌다.

시의 수사법이라 할 수 있는 賦·比·興과 관련하여 朱熹는 이에 대해 각기 정의하고³¹⁾ 각 편의 장마다 어떠한 표현법에 해당하는지 주석을 달았다. 305편 가운데 모든 장이 부·비·흥으로 통일된 편장은 부(160)·비(21)·흥(52)의 총 233편이며 그 외에 하나의 편에서도 각 장마다 부·비·흥이 다르게 사용되었거나, ‘比而興’ 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수사법이 혼용된 장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부·비·흥에 따른 시제 출제 비율의 구분, 특히 賦에서 많은 시제가 출제된 점에서는 특별히 유의미한 특징을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興에서 아주 적은 문제가 출제된 점(1%)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희와 달리 『毛詩』나 『鄭箋』에서는 305편 시가 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기록하였다. 부나 비에 해당하는 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볼 때 興의 수사법을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책에서 興에 해당한다고 기록한 편이 각기 다르므로 단정지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편수로 따져보아도 부>흥>비의 순서를 따른다.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 興에 해당하는 편장을 거의

30) 이는 豳風에 속한 「칠월」을 正風과 變風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경』의 15개 국풍 가운데 「주남」과 「소남」을 정풍으로, 그 외 13개 국풍은 변풍으로 간주하는데, 가장 마지막의 豳風을 변풍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유들의 논란이 있었다. 程子は “詩匪風下泉, 所以居變風之終也.”이라고 하여 匪風을 변풍의 끝으로 보았고, 呂祖謙은 “變風終於陳靈, 其間男女夫婦之詩, 一何多邪.”라고 하여 陳風을 변풍의 끝으로 보았다. (『詩傳大全』 권7) 또한 이에 대해 程元과 文中子가 토론한 내용이 『시전대전』 권1에 수록되어 있다. <程元問於文中子曰, “敢問豳風, 何風也?” 曰, “變風也.” 元曰, “周公之際, 亦有變風乎?” 曰, “君臣相諍, 其能正乎? 成王終疑周公, 則風遂變矣, 非周公至誠, 其孰卒正之哉?” 元曰, “居變風之末, 何也?” 曰, “夷王以下, 變風不復正矣, 夫子蓋傷之也. 故終之以豳風, 言變之可正也, 惟周公能之. 故係之以正, 變而克正, 危而克扶, 始終不失其本, 其惟周公乎! 係之豳, 遠矣哉.”>

31) 『詩傳大全』 권1, “賦者, 敷陳其事而直言之者也.”; “比者, 以彼物比此物也.”; “興者, 先言他物以引起所詠之詞也.”

출제하지 않은 까닭은 아마도 상징법에 가까운 흥의 기법이 直敍에 가까운 부에 비하여 어렵다고 판단했던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의 구절보다는 왕업의 성대함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에서의 출제를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역』에서는 「계사전」과 첫 번째 괘인 「건괘」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계사전」은 『주역』의 十翼 가운데 하나로, 괘사와 효사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온갖 형이상학적 내용으로 점철된 『주역』의 경문에 대해 응시생들이 그 경의를 모두 통달해서 알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계사전」은 학자들이 『주역』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글로, 조선 시대 왕실과 학계에서 모두 중요하게 여겼다.

조선 15대 군주인 광해군은 항시 筮臣에게 “「계사전」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춤추고 발을 동동 구르는 지경에 이른다.”³²⁾고 하였으며, 정조대 병오년(1786)에 시행할 別試의 講規를 품정하라는 명령에 예조판서 金履素는 영조대 기묘년(1759)의 절목을 예로 들며 『주역』은 「序卦傳」·「文言傳」·「繫辭傳」만을 강할 것을 아뢰었다.³³⁾ 당대의 학자들 또한 「계사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계사전」을 이학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³⁴⁾ 『주역』의 뜻을 제대로 밝명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계사전」의 설을 학습해야 함³⁵⁾을 설파하였다.

「건괘」는 64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괘이면서 하늘, 군주, 아버지를 상징하는 괘이다. 이 괘의 九五 爻辭인 “飛龍이 하늘에 있으니, 大人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飛龍在天, 利見大人).”라는 구절은 聖人이 왕위에 즉위하여 훌륭한 신하를 만나 善政을 베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높은 출제 요건을 모두 다 갖춘 괘라고 할 수 있다. 단일 문제로 많이 출제된 구절은 「離卦」의 象傳인 “밝음이 두

32)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 광해 즉위년(1608), 2월 21일 기사, “常語筮臣曰, 讀繫辭傳, 不覺手舞足蹈也.”

33) 『日省錄』 정조 9년(1785) 12월 6일 기사 “命丙午別試講規稟定. 禮曹判書金履素啓言. 己卯節目中, 但曰三經中自願一經, 抽籤沒一篇背講, 一如明經例. 書之篇止于今文古文, 詩則只六義, 易則序卦文言繫辭而已, 註則俱無學論之事, 不可無稟定知委, 得免臨時疑眩之端. 從之.”

34) 『栗谷先生全書』 권20, 「聖學輯要」2, 修己第二上, “臣按, 物必有理, 皆須窮格. 今所引夫子繫辭之說, 爲理學之源本, 次引經傳諸說, 略明在物在身之理, 以爲求端之資.”

35) 『密菴集』 권10, 「雜識」, “若欲發明全易, 則當如孔子繫辭之說, 而引伸觸類於四道及通志定業斷疑處, 各盡其義, 乃可矣.”

번 일어난 것이 離이니, 大人이 이를 보고 밝음을 이어 사방을 비춘다[明兩作離, 大人以繼明照于四方].”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곧 ‘重離’, ‘離明’ 등으로 축약되어 현명한 임금의 王位를 훌륭한 세자가 세습함을 의미하거나, 轉하여 천자나 태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五經義 시험의 시제로 자주 출제된 편장과 중복출제 문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경서의 체제와 내용상의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출제 빈도가 높았던 편장들의 주요 내용은 王道와 관련하여 聖君과 賢臣에 관한 내용으로 집중되었다.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사회에서 先王의 공적을 추송하고 이를 계승할 聖君을 소망함은 자연스러운 이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성군을 보필할 현명한 신하들을 얻는 데 힘써야 함 또한 자명했다. 당대 최고의 문신으로 구성된 시관들이 국가 관리의 선발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절을 출제한 것은 너무도 당연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구절보다는 직접적인 내용을 서술한 구절이 많이 출제되었다. 이는 이 시험이 五經의 방대한 경문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생원시의 두 과목인 四書疑와 五經義의 과목명이 疑와 義로 다른 점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四書의 경우는 경문 속의 의문점을 치밀하게 궁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시험한 데 반해, 五經에 대해서는 각 구절의 經義에 대해 諸賢들의 설을 적절하게 요약·서술하는 능력을 시험한 것이다. 사서보다 오경의 경문 분량이 많고 그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응시생들은 사서에 비해 오경을 준비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³⁶⁾ 또한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五經의 경문을 전부 학습하는 것은 한 가지 경을 택하여 그것만을 충실히 학습하는 것만 못하다는 논의가 조선전기부터 지속되는 등³⁷⁾, 응시생들에게 있어 시험을 위한 오경의 학습은 큰 부담이 되었음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시관들은 시제 출제에 있어 경문을 괴이하게 축약하여

36) 『조선왕조실록』「명종실록」 3권, 명종 1년(1546년) 6월 16일 기사, “居館生員·進士及寄齋四學儒生讀書日數, 『大學』一朔, 『中庸』二朔, 『論』·『孟』各四朔, 『詩』·『書』·『春秋』各六朔, 『周易』·『禮記』各七朔, 爲定限.” 이를 통해 볼 때 오경을 학습하는 시간은 사서에 비해 대략 3배 가까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원재(2009), 『조선전기 과거제에서의 一經 부과 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31집, 한국교육사학회, 105면 참고.

37) 이원재, 위 논문(2009), 106-108면 참고.

응시생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선유들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구절을 골라 출제하는 등의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굳이 필요치 않았던 듯하다.

V. 나오며

지금까지 조선시대 생원시의 한 과목인 五經義에서 출제된 750여 개의 시제를 대상으로 하여 각 경문 편장에서의 출제 분포와 중복으로 출제된 구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정조대에 폐지된 春秋義를 제외하고 四經義에서 출제된 시제를 분석해 본 결과, 禮義)書義)詩義)易義의 순으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문의 앞부분에 수록된 편장이 뒷부분에 비해 비교적 출제 빈도가 높았으며 첫 편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시경』의 경우는 첫 편인 「주남·관저」에서 단 한 편도 출제되지 않는 등, 다른 세 책과는 상이한 출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시제 출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구절이 아닌 편명 자체를 적는 등의 변칙성이 보이거나, 비교적 원 경문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었다. 중복 출제와 관련해서는 정조대~순조대 향시에 출제되었던 시제가 현종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출제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제집과 과문집이 간행된 시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원시의 다른 과목인 四書疑 시제의 중복출제 경향과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주 출제된 편장의 내용은 왕업의 성대함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예기』의 경우 喪禮와 관련한 내용, 『시경』의 경우 變大雅로 구분되는 시에서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 등, 편장의 내용에 따라 그 집중과 기피의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 또한 추상적이고 난해한 내용의 구절보다는 직접적이고 뚜렷한 내용의 구절이 훨씬 많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사서에 비해 오경의 양이 많고 그 내용이 어려워 응시생들이 이 시험에 대비하기 어려웠던 점을 시관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결과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에서 五經義 시험으로 출제된 시제들의 일면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다만 조선 전기의 자료가 태부족하고 문과 초시와 관련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시기

별·시종별 경향을 비교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지속적인 자료 보충을 통해 조선 전기의 자료를 더욱 확보해야 할 것이며, 특히 五經義 시험이 문과 초시에서 시행되었던 영조대 이전의 문과 초시 시권 등 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五經義 과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시제 출제와 관련한 각 경마다의 개별 연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답안의 내용 또한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이는 후일의 연구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투 고 일 : 2020년 08월 10일

심사기일 : 2020년 08월 20일~08월 31일

게재확정 : 2020년 09월 07일

〈참고문헌〉

원전 및 단행본

- 『科題各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6989), (奎7299).
『京外題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9943).
『毛詩註疏』, 國學基本叢書185, 臺灣商務印書館, 1968.
『密菴集』, 한국문집총간 속83집, 민족문화추진회.
『司馬榜目』, 국학자료원, 1990.
『詩傳大全』, 文淵閣四庫全書 78, 臺灣商務印書館, 1983.
『五經義』,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고)180).
『栗谷先生全書』, 한국문집총간 44~45집, 민족문화추진회.
『臨軒功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11437), 국립중앙도서관(古貴3647-5).
『臨軒題叢』,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11437).
『日省錄』 정조 054, 한국고전번역원, 2006.
『義東』,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고)811.0829).
『義題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MF35-8946).
양카이푸 지음, 김효민 옮김(2015), 『팔고문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일반논문

- 김동석(2013), 『朝鮮時代 試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김수경(2017), 「조선 시대 五經 文獻의 眞僞性 검열에 대한 공적 담론」, 『한국한문학 연구』 68집, 한국한문학회.
박현순(2015), 「조선 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2016),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出題」, 『규장각』 4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윤선영(2017), 「순조~철종대 科擧 四書疑 시제 출제경향 연구」, 『奎章閣』 5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2019), 「조선 후기 科擧 生員試 문답의 한계점 고찰 -四書疑 과목을 중심으로-」,
『JKC』 45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 (2019), 『조선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래중(2013), 「疑義의 形式과 그 特性」, 『대동한문학』, 39집, 대동한문학회.
- 이원재(2009), 「조선전기 과거제에서의 一經 부과 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31집, 한국교육사학회.

Web-site

-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http://archive.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 법령자료 DB(<http://db.history.go.kr/law>)
-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 E-뮤지엄(<http://www.emuseum.go.kr>)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한국경학자료시스템(<http://koco.skku.edu>)
-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kostma.net>)

Abstract

A Study on test questions for the Ogyungyi(五經義, subject of saengwonsi) in Joseon period

Yoon, Sun-Young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750 questions that appeared in a subject test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Questioning on the Five classics” (Ogyungyi 五經義), during the Joseon period. Test questions appeared scrolls of the exam papers, collections of sample questions and prose. They were actively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 to King Sunjo, Imheon gongnyeong (臨軒功令) are best known. For prepare this subject reference books are handed down to descendants like Uidong (義東). 750 questions took Liyi(禮義)›Shuyi(書義)›Shiyi(詩義)›Yiyi(易義) in order of precedence. In regional examination, Shijing(詩經) occupied a high rate. Yueji(樂記) of Liji(禮記), Hongfan(洪範) of Shujing(書經), Tianbao(天保) of Shijing, Xicishangchuan(繫辭上傳) of Zhouyi(周易) set many questions. They shows common contents diabout respectation to honorable kings and wise servants directly. On the other hand, about funeral rites of Liji, degenerated daya(變大雅) set a few questions. According to the content, concentration and avoiding of question trends come out clearly.

Keyword : Civil service examination(科擧), Chinese classics(經學), saengwonsi (生員試, a preliminary examination), Ogyungyi(五經義, questioning on the five classics), test questions(試題)

www.kci.go.kr